

15

서로 사랑하라

요 13:34~35, 요일 4:7~21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 하심은), 찬양 143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1. 형제자매와의 우정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압니다.
2.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압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하라 내가 너희를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너희가 서로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을 이해하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사랑합니다. 발이 가시에 찢리면 눈은 재빨리 다친 부위를 살피고, 손이 가시를 빼낸 후 어루만져 줍니다. 입은 ‘아이 아파~’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온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제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사랑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사탄이 형제자매를 서로 이간시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누려는 꾀계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면 이는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그들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에 죄의 기질이 남아 있어서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움켜쥔 채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형제자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is born of God and knows God. H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 (1 Jn 4:7~8)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②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3:34).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적어봅시다(요일 4:9~11).
- ② 내가 형제나 자매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을 떠올려 적어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요 13:35).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를 적어 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①

②

4

날 가장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가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간단한 편지글을 써 봅시다.

사랑하는 _____ 에게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인

요 13:3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오

요 13:3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요 15: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수

히 13:1

목

벧전 3:8

금

벧전 3:9

토

요일 2:6



나는 세 번째

공부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뛰어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끝마치고 성적이 뒤지는 친구들도 가능한대로 힘껏 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물론 교수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모는 가을 추수를 끝마치자 맛있는 과일들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나누어 먹자며 몇몇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의 초청을 받아 온 친구들은 그의 책상 앞에 걸린 이상한 액자를 보았습니다. 액자에는 으레 사진이나 그림 혹은 그것도 아니면 유명한 글귀를 넣어서 걸어 두기 마련인데, 그 액자에는 ‘나는 세 번째’(I am third)라는 짧은 글귀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와 액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도대체 그 글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은 온 가족이 크리스천이야.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를 공부시켜주셨어. 그런데 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이곳으로 오던 날, 어머니께서 대학입학 기념으로 저 액자를 주셨어. 어디를 가든지 저 액자를 책상 앞에 두고, 그 글귀를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면서 말이지. 그 이후로부터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저 글귀는 나를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었어. 나의 어머니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들아, 언제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차례가 바로 너란다.’라고 말씀하셨지.”



질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셨으나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시궁창에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어도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을 대하여는 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의 깊이만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술주정뱅이를 전도하기 위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노름꾼을 전도하기 위해 노름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케 해야 하며 죄에서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20~21).

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접촉해야 하지만, 죄에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